

일본 LPG업계 생존을 위한 통합 시작

신일본석유-미쓰이마루베니액화가스(MLG), LPG사업 통합

신일본석유(주), 미쓰이물산(주), 마루베니(주), 마루베니액화가스(주)는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통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일본LPG업계의 생존을 위한 사업통합으로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권영범과장

신일본석유와 미쓰이마루베니액화가스(MLG)가 LPG사업의 생존을 위해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본석유의 보도자료('10.4.5)에 따르면, 양사는 통합 신설회사를 설립해 전국의 LPG 공급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며, 아울러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일본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 에너지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등 LPG산업의 경영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사업의 통합 추진을 통해 일본 LPG산업의 생존위협을 극복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통합방식과 출자비율은 신일본석유로부터 LPG사업부문을 분할, MLG(지분율 : 미쓰이물산 60%, 마루베니 40%)와 합치는 방식으로 통합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설 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신일본석유가 발행 주식 과반수를 보유하고, 미쓰이물산과 마루베니가 약 30%, 20%를 각각 갖는 방향으로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통합 일정은 오는 5월 말까지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통합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기준 LPG 수입량은 신일본석유가 177만7천t이었으며, MLG는 168만7천t에 달했다. 내수 판매량은 신일본석유의 경우 247만3천t, MLG가 187만4천t에 이르렀다.

신일본석유(주)의 LP가스사업 및 미쓰이마루베니액화가스(주) 개요

상호	신일본석유(주)	미쓰이마루베니액화가스(주)
수입량('08)	약 177만7,000톤	약 168만7,000톤
내수판매량('08)	약 247만3,000톤	약 187만4,000톤
1차기지(수입기지)	센다이제유소 외 4개소	아오모리제유소 외4개소
2차기지	아키타가스터미널 외 2개소	門司LPG터미널 외 4개소
주요판매사	관동신일본석유 외 5개사	(주)사가프로 외 1개사
직판건수	약 10만건	약 20만건



JAPAN
★Tokyo

●Kyoto
●Osaka